

<다큐 3일>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

지난 7월 20일 KBS <다큐3일> 방송 중 귀사가 발언한 내용과 방송에서 노출된 사육, 운영 방침에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시청자를 호도하고, 해양생태계 보존과 동물 복지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1. 동물 유입 경위에 대한 해명

방송 내용 중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벨루가 3 마리에 대해서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해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고아가 된 벨루가를 한 군데서 모아놓고 관리를 하던 동물을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제 29회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해당 동물들에 대해 발표한 ‘흰고래 연구 및 사육관리’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동물에 대해 ‘2011년 여름 6-7월에 포획된 개체로, 러시아 가두리에서 약 10개월의 순치과정을 거친 후 2012년 4월에 국내로 이송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가 7월 21일 당해 시설 아쿠아리움 운영팀에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동물이 유입된 시설은 ‘러시아 태평양수산연구센터(Pacific Scientific Research Fisheries Center, TINRO)’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TINRO로 유입되기 전 구조 경위나 ‘구조한 개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수산연구센터(Pacific Scientific Research Fisheries Center(TINRO))’는 러시아 정부 기관으로, 귀사가 방송에서 밝힌 대로 ‘고아가 된’ 벨루가를 구조,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러시아 정부는 외화 수입의 방법으로 야생 벨루가를 포획해 수출하는 정책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00마리 이상의 야생 벨루가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총 29종의 벨루가 중 야생개체수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종은 4종에 불과하다는 점, 야생포획 외에도 사냥,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 변화, 선박과의 충돌 때문에 15만 마리 이상의 개체들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더욱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해양수산부는 조지아 아쿠아리움(Georgia Aquarium)이 제출한 어린 벨루가 18마리에 대한 수입 신청을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벨루가들이 포획될 경우 야생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허가할 경우 러시아의 고래목 포획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 19마리 중 5마리는 아직 1살 반밖에 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무분별한 고래류 포획이 국제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 기관이 ‘고아가 된’ 개체들을 구조해 보호한다는 사실은 전세계의 고래류 포획에 대한 상황을 상시 조사하는 본 단체로서도 금시초문이며, 이에 대해 국제단체에도 문의했으나 당해 시설에서 묘사한 구조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만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관람객을 현혹하거나 어린 야생 고래류의 포획과 전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시설에 대해 거짓사실을 방송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방송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보유한 벨루가 세 마리의 포획 경위와 포획한 기판명, 구입 절차를 정확히 밝히고, 방송에서 주장한 ‘도태 직전 벨루가의 구조’ 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벨루가 구조가 허위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2. 해양동물구조치료전문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 구조 동물에 대한 조치

방송 중 당해 시설은 사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에 대해 ‘불법포획과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사육동물 중) 대부분이 구조된 개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낚시배에서 상업가치가 낮아진 물고기들의 관상용 이용을 위한 수확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다’는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3년 3월에,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2012년 8월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2012년 9월 25일 제주도 신산리 정치망에서 구조한 바다거북은 구조한지 64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쿠아리움 일반 관람실에 전시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단체가 윤명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바다거북의 구조 이유는 외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상의 치료에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혹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아직 처치 중이라고 할지라도 따로 격리되어 집중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람용으로 전시되는 것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해양동물의 구조는 최종 목적이 방류가 되어야 하며, 치료 후 영구 전시를 목적으로 한 포획은 구조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제도를 악용해 전시용 생물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본 단체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중인 바다거북에 대해 조속한 치료 및 수의학적 점검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후 방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지체없이 서식지로 방류할 것을 지난 7월 4일 의견서를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해 시설에서 방송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상어 등 최근까지도 해양동물 구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단체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현재 구조치료 명목으로 전시중인 생물의 종과 숫자를 밝히고, 각 개체에 대한 치료 상황과 방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억류하고 있는 푸른바다거북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서식지로 방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3. 기타 부적절한 관리방법 시정과 발언 내용 해명

본 단체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일산, 제주 현장조사 후 7월 4일 발송한 의견서를 통해, 관람객이 수조를 두드리는 행위, 관람객에게 소음을 유도해 동물을 과도한 소음에 노출시키는 행위, 박테리아 생장이 용이한 다공질인 플라스틱 재질의 먹이통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방송 내용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직간접적으로 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없이 노출되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안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이 있는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에서 동물복지를 위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개체 간의 갈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격리 사육 역시 사회적 본능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암컷 벨루가의 격리사육 장면을 방송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육사의 '최소한의 공간에서 (동물에게) 최대한으로 배려해주는 것이 아쿠아리움 자체의 목적'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흐름과 맞지 않고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발언으로,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같이 수만 마리의 생명체를 전시하는 대규모 전시시설에서 이러한 철학을 갖고 사업에 임하는 것은 타 영세업체들도 동물 사육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하고, 동물들을 더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내몰게 하는 사회적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7월 17일 발효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입장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관람객이 수조를 두드리지 않도록 하고, 소음을 줄이는 등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즉각 개선하고, △벨루가의 개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쿠아리움의 목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를 요구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